

해방의 자유와 대한민국 건국 70주년의 의미

성경말씀: 갈5:1

지난주,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갈5:1), 자유(리버티), 인간은 속박된 채 태어난다.

리버티는 마귀에게, 죄에, 세상에, 육신에, 율법에, 죽음에, 지옥에서 벗어나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인간의 모든 영역에서 자유가 생긴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어떤 나라와 교회와 개인이 가장 잘 사는가?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나라, 교회, 개인
어떤 나라와 교회와 개인이 가장 못 사는가? 개인의 자유를 막는 나라, 교회, 개인
그래서 우리 침례교, 성경 신자들의 가장 큰 가치는 영혼의 자유, 종교 개혁의 가치, 미국의 가치,
성경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

그런데 이 날 설교로 인해 여러 가지를 생각한 분들이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전화함

1. 6000년 인류 역사, 사람들이 보편적 자유를 누린 지 이제 200년 밖에 안 되다니 놀랍다. 지금도 전체 인구의 80%가 속박 가운데 있다.
2. 기독교 국가로 시작한 미국의 힘, 대한민국은 감사해야 한다.
3. 단순히 영혼 구원이 아니라 인간 사회 전체를 보는 눈을 갖게 되어 기쁘다.

4. 갈5:1의 자유는 freedom이 아니라 liberty, 그래서 그대로 읽으면 이상, 스스로 성경 연구 liberty 총 27회(9, 18), 단순한 자유가 아니라 해방으로서의 자유, 영어 사전에 가서 보니 1차 의미가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 즉 해방 혹은 석방, 그로 인한 자유

레25:8-17, 희년 제도, 일곱 안식년, 그 다음 해 희년, 10절,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 13, 목적(17), 사61:1도 해방의 자유, 지난 주 설교 갈5:1도 해방의 자유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라는 말의 다수가 freedom이 아니라 liberty이다.

자유는 여신상, 자유의 종, 자유 공원,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오늘은 < > 해방의 자유와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 더 설명하려 한다.

자유와 속박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자유 의지

마귀로 인해 죄가 들어오면서 속박에 갇히게 됨

구약시대 4000년을 마치고 때가 충만히 찼을 때에 메시아가 오(갈4:4), 속박에서 해방을 주려고(4:5)

그 결과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되어 아버지라고 부르게 됨(6-7)

갈5:1의 의미, 완전한 해방, 구습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사람의 문제: 마음에 종교심이 들어 있다. 이것은 교만이 원인

하나님께 나가려면 내가 일정 부분을 담당해야 하지 않겠는가? 어떻게 공짜로 구원 해방을 얻는가?

그래서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선한 행위를 통해 구원을 얻으려고 시도한다.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 아브라함 선택, 유대인들의 시조,

국가를 이루기 위해 이집트 고생, 탈출, 드디어 모세를 통해 1500년 전에 율법을 주심

이스라엘의 문제: 율법 준수를 통해 즉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얻으려는 것

이러다 보니 무려 1500년 동안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함

바리새인들 등장, 600여 개의 율법 조항, 지키면 구원, 못 지키면 정죄

예수님의 등장: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아니하신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보라.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갈3:6-7, 믿음으로만 된다.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자들 믿음으로

그러면 율법은 무엇이냐? 3장 24-25절

율법은 구원하지 못한다. 죄를 보여 줄뿐이다.

이렇게 해서 율법주의자이던 바울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음.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그래서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복음 선포,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음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함: 유대 지방의 유대인 교사들, 할례를 받아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구원 유지, 또 하나의 속박이 생기기 시작함

완전 자유나, 내가 또 무엇을 해야 하느냐?

바울의 단언(갈1:6-9), 그것은 다른 복음이다. 또 하나의 속박이다. 저주를 받는다.

바울의 확언(갈2:15-16)

여전히 이 문제가 식지 않음(3:2-3), 바울의 확언(3:13)

바울의 권고(4:9-10), 할례 문제(5:2-4)

즉 갈5:1의 해방의 자유를 얻으면 영원한 자유이다. 거기다 우리가 무언가를 더할 수 없다. 그런데 지금도 무언가를 더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무언가 부족하다”

갈라디아 교회의 이런 현상을 현 시대에 적용하면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 교리 부정하는 것 어떤 분이 이메일 보냄

“목사님의 모든 설교에 90프로 이상 동의합니다. 한 가지 동의 못하는 것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냐에 관한 관점입니다. 토마스 주남 여사님이 쓴 ‘천국은 있다’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십일조 안 하는 기독교인, 십계명 안 지키는 기독교인 구원 No, 주일날은 헌금과 십일조 외에 돈을 쓰면 안 된다고 합니다. 즉 자동차 기름도 토요일 날 미리 넣고 밥도 밖에서 사먹지 말고 즉 율법을 지키고 죽는 순간까지 회개해야 하고 모든 크리스천의 1프로만 휴거를 받는다고 합니다. 99프로 기독교인은 무늬만 기독교인이자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휴거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 믿음이다.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에 구원을 못 받는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원한 해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토마스 주남은 이단입니다. 이런 사람을 언급하려면 제 설교 듣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미국의 어떤 분이 구원을 잃는 듯한 성경 구절을 잔뜩 보내면서 “에베소서 2장이 믿음만으로 영생 얻는다고 가르친다?” 제목의 글을 보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칭의 구원을 가르친 후에 3장에서부터 6장 끝에 이르기까지 성화 필수 구원론을 가르칩니다.” 어디에 성화 필수 구원론이 있는가? 성경은 절대로 애매모호하지 않다.

사람은 행위 없이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 뒤에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 보상을 받는다. 구원 이후에 선한 행위가 나오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종에서 아들로 신분이 바뀌었다.

아들의 열매가 나와야 한다. 자유를 얻었다고 죄 짓는 면허를 받았는가?(롬6:1-2)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해방의 자유를 얻으면 반드시 그에 수반되는 선한 행위가 나온다(엡2:8-10). 그런데 그 선한 행위로 구원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구원은 우리 힘으로 받는 것이며 그러면 그것은 다른 복음이다. 추후에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 설명할 것이다.

다시 한 번 갈5:1, 해방의 자유로 우리를 영원토록 자유롭게 하셨으니 영원한 안전 보장, 다시 속박의 명예를 매면 안 된다.

그것은 저주받을 다른 복음이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하나님의 기쁨

2018년 8월 15일은 두 가지 의미

1. 73년 전, 1945년 8월 15일 일제 36년 식민지 탈출 해방이 이루어졌다. 리버티(갈5:1)

그런데 여전히 리버티를 실현할 수 있는 국가가 없음, 헌법이 없음

2. 70년 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드디어 리버티를 실현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가 탄생
한민족 역사 5000년, 하나의 민족으로 인식된 것은 주후 675년 경 신라의 삼국통일 이후
대한민국 탄생 이전 5000년 동안 자유를 누린 적이 있는가? 고려, 조선, 일제 식민지

특히 조선 시대: 잘못된 편견, 지독히 나쁜 나라, 국민의 30% 이상이 노비

독일 여행가 헤세 베르텍 120년 전 조선에 여행 옴, <조선 1894 여름>

조선 정부는 마지막 푼돈에 마지막 쌀 한 톨까지 다 빼앗아 감(75-76쪽)

오히려 조선 관리보다 일본 군인들이 덜 무서움

서울로 연결된 길은 매우 초라하고 다니기가 힘들어 처음 서울을 방문하는 이방인을 놀라게 했다.

(p.76)

서울은 아마도 호텔, 여관, 찻집이 없는 지구상에서 유일한 '수도'일 것이다(77).

남산에서 내려다 본 서울은 마치 황량한 황무지와도 같았다. 땅바닥과 거의 구분이 안 되는 납작한 황토빛 초가집 투성이에 도로도 없고, 고층 건물도 없고 나무들과 정원도 없었다(77).

그런데 황토빛 도시에서 오아시스 같은 곳을 발견했다. 푸른 나무들도 보이고 여기저기 번듯한 기와집도 보였다. 그것은 왕궁이었다. 그런데 규모가 너무 초라했다. 그러니깐 이 작고 눈에 안 띄는 건물들이 500년 동안 조선을 지배해왔던 이씨 왕조의 궁궐이라는 것이다! 나는 태국, 버마, 캄보디아에서와 같은 왕궁을 기대했는데, 내 눈앞에 보인 것은 정말 초라한 규모의 건물이었다. 지금까지 내가 여행했던 곳에서는 아무리 도시 외관이 초라해도 높다란 사원이 최소한 하나씩은 있었는데, 이곳은 아예 없었다. (p.81~82)

서울을 통틀어 2층 높이의 건물은 두세 채에 불과할 것이다.

사람들은 최악의 위생 상태를 지닌 흙집에 거주했다.

이른 아침부터 밤늦도록 비좁은 골목길을 돌아다녀 보았지만, 남자들이 일하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남자들은 하루 종일 곱방대를 입에 물고 빈둥거리거나, 골목길 한가운데 웅기종기 모여 앉아 노닥거리거나 낮잠을 잤다. (p.87)

반면에 조선에서 여성이 한가롭게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으며 남성과 함께 있는 것도 본 적이 없다. 남자들이 집 앞에서 잠을 자거나 담배를 피우고 노는 동안 여자들은 집 안이나 마당에서 쉬지 않고 일을 했다. 힘든 일도 척척 해냈다. 끄꿍거리며 우물에서 물을 퍼 올리고, 밭에서 일을 했고, 무거운 짐을 날랐다. 또 밤늦게까지 길쌈을 하고 다림질을 했다. 바로 여기서, 여성을 존중하지 않는 민족일수록 문화 수준이 낮다는 사실이 입증된다. (p.87)

사실 조선인들은, 열심히 일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무엇을 위해 일한단 말인가? 만일 그들이 정말로 많은 돈을 번다면 곧 관리들에게 빼앗길 것이다. 관리들이야말로 조선의 몰락과 가난함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니, 그들로 인해, 조선은 '이윤 추구'와 '노동의욕' '모든 산업'까지 질식되고 말았다. 고로 서울보다 일을 적게 하는 도시는 이 세상에 아마도 없을 것이다. (p.87~88)

이것이 지금부터 100년 전의 우리나라 실상, 고종 황제는 국민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호위호식하다 죽어간 악덕 임금, 이러니 나라를 잃고 자유를 잃을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1910년 8월 29일 일본에 나라를 잃음, 경술국치, 결국 미국의 힘으로 1948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음
우리나라는 미국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객관적 평가
해방, 6.25전쟁, 그 이후의 한민동맹, 원조, 물건 구매, 영원히 같이 가야 한다.

이 중에서 장장 중요한 것은 언더우드 아펜젤러의 복음 선포(1885년 4월), 인천 제물포로 들어옴
영혼 구원의 복음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의 해방의 소식
근대 지식인들의 다수는 기독교인 혹은 기독교 문물을 접한 사람들

그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우남 이승만: 그는 한성감옥에서 선교사들의 더 할 나위없는 도움을 받았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승만은 동료 죄수들에게 열심히 전도했다. 그리고 성경반을 개설했고 그 결과 '옥중학교'가 개설되었으며 결국 감옥은 (성경) 연구 방으로 시작해서 기도의 집이 되고 그 다음에는 예배당으로 바뀌었다가 결국 신학당이 되었다.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 안의 성경반이 신학당이 되는 과정에서 이상재 등의 신자들이 나오면서 양반 관료와 개화 지식인들이 신자들이 되기 시작했다. 이들에게 기독교의 복음은 더 이상 근대 이데올로기가 아니었고 근대 체제의 방편도 아니었다. 이들은 근거로부터 솟아나는, 내적 신앙에 대한 고백을 지녔다.

이승만은 그 당시 조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많이 전 세계 여행을 하였다. 스위스뿐 아니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폴란드, 헝가리, 오스트리아, 그리고 러시아까지 여행하였다. 미국에 체류하면 프리스턴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가 얻은 결론: 기독교의 가치인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세워야 함, 공산주의는 마귀의 것
이승만은 한국이 기독교 복음이 중심이 되는 나라가 되기를 기대했고 동시에 근대 기독교적 윤리관에

의해 변화된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믿었다.

해방 이후 70-80%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원하였으나 이승만과 자유 민주주의 세력은 미국 헌법의 자유 민주주의/자유 시장 경제 체제 정신을 그대로 승계하여 자유 민주주의 헌법 제정

<국회 속기록 제1호>,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 임시의장 이승만 박사: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 사람의 힘만으로 된 것이라고 우리는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동의와 제청)

이승만 박사: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기도를 올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윤영 의원(감신, 목사 1917년)이 나올 때 일동 기립했다.

“우리에게 독립을 주신 하나님!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복을 내리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셔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셨으며 세계인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써 역사적인 환희의 날이 우리에게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만방에 드러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남북이 둘로 갈린 이 민족의 고통과 수치를 씻어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민생의 도탄이 오래 갈수록 이 땅에 악마의 권세만 확대될 것이오니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독립을 주신 하나님, 이제는 남북의 통일을 주시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48년 8월 15일 초대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 취임식에서 성경에 손을 얹고 “하나님과 동포 앞에서 대통령 직무를 다하기로 일충 결심한다”고 맹세함.

이것이 이승만의 정신, 미국의 정신, 프로테스탄트 정신, 기독교의 정신(갈5:1), 예수 그리스도의 해방의 자유 정신

이후로 하나님은 박정희라는 위대한 대통령을 주셔서 산업화를 통해 세계 최고 국가를 만들어 주심 부지런한 국민, 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국가를 개조함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이 두 사람의 작품, 그 뒤에 하나님의 손길

이들은 하나님의 도구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둘이 없었으면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 불가능

그런데 70년이 지난 지금 이 세대는 자유와 번영의 귀중함을 모르고 다시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 억압 체제로 돌아가려고 한다. 속박의 멍에를 매려고 함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 이 나라를 세운 것은 기독교인, 예수 그리스도의 해방의 자유 정신

특히 기독교인들이 알아야 한다. 좌파들의 선동에 넘어가 이승만 같은 훌륭한 믿음의 선조를 폄하하는 일 회개하고 정정해야 한다. 이승만이 없었으면 우리의 이 자유 불가능.

갈5:1

속박에서 해방의 자유를 받았으니 여기에 굳게 서서 먼저 구원받아 영혼의 영원한 자유를 누려야 한다.

그리고 정치 사회 교육, 문화 모든 분야에서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중국 러시아 북한 세력 힘으로 눌러 이기고 하나님의 해방의 자유의 가치를 세워 나가야 한다. 그래서 후손들에게 이 자유를 넘겨주어야 한다.

이것이 이 시대에 한국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책무

다시는 속박의 멍에 - 전체주의, 무지, 미신, 인기영합주의, 신정국가, 율법 - 를 매면 안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 서야 한다. 건국 70주년의 의미(갈5:1)